GLOBAL MACRO DAILY NEWS DIGEST

글로벌 뉴스 다이제스트 26.09.18(오전)

26.09.18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뉴스 라운드업

- 연준, 3 년 만에 기준금리 25bp 인상(3.75~4.00%) 단행에도 유가·국채금리 동반 하락 속 뉴욕 3 대 지수 반등(S&P500 +1.14%·나스닥 +1.69%), VIX 도 15.45 로 급락
- 영란은행 기준금리 동결(3.75%)과 장기 국채매각 중단 선언에 영국 국채금리 급락·FTSE100 강세, 다만 내년 초 물가 4%대 진입 경고 병행
- 사우디 송유관 피격 등 중동 지정학 긴장 지속에도 WTI 는 소폭 약세(101.91 달러), 금은 달러 약세 속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4,341 달러)
- 프랑스 정부 540 억유로 규모 2027 년 예산 긴축안 추진, 방치 시 재정적자 GDP 대비 6.5%까지 확대 경고 속 연료세 반발 시위 확산

매파적 연준 인상 충격을 유가 하락과 크레딧 완화가 되돌리며 뉴욕증시가 반등했다

현지시간 9 월 16 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3.75~4.00%로 올렸다. 위원 전원 찬성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매파적 색채가 짙었지만, 정작 시장은 하루 뒤인 17 일 뉴욕 정규장에서 안도 랠리로 반응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유가가 한 주 최저 수준으로 밀리고 미 국채금리(10 년물 -8.1bp, 2 년물 -6.6bp)가 동반 하락하면서 S&P500 과 나스닥은 각각 1.14%, 1.69% 오르며 마감했고 변동성지수(VIX)도 15.45 로 12%대 급락했다. 미 하이일드 크레딧 스프레드도 6bp 축소되며 최근 부각되던 긴축발 크레딧 경색 우려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인데, 이는 하우스에서 짚어온 'FOMC 매파 충격에 대한 시장의 초기 과잉반응이 되돌려지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미국 30 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95%로 2025 년 1 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 고금리 부담이 주택시장에는 여전히 무겁게 작용하고 있다.

영란은행(BoE)은 같은 날 기준금리를 3.75%로 6 대 3 표결 끝에 동결했지만 내년 초 물가상승률이 4%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매파적 신호를 함께 냈다. 대신 장기물 국채 매각을 향후 6 개월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영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FTSE100 은 1.2% 올라 한 주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펌프장 세 곳이 최근 공격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 대한 미국의 100%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하는 등 지정학·통상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 있어, WTI 는 소폭 하락에 그치며 배럴당 100 달러 안팎의 높은 레벨을 유지했다. 금값은 달러 약세와 유가 진정에 힘입어 1.79% 오른 온스당 4,341 달러로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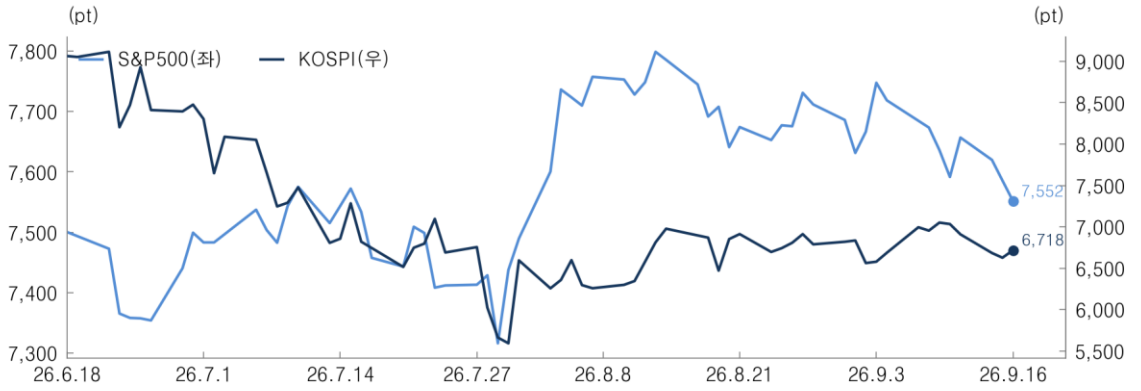
재정 쪽에서는 프랑스 르코르뉘 총리가 2027 년 예산에 540 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별도 조치가 없으면 재정적자가 GDP 대비 6.5%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나온 조치로, 연료세 인상에 반발한 시위가 확산하는 등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2 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0%로 시장 예상치(1.6%)를 웃돌며 신흥국 쪽에서는 드물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고, 그 여파로 남미 증시·통화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날 코스피(-0.04%)·항셍(-0.44%)·CSI300(-0.45%)·닛케이(+0.33%) 등 아시아 증시는 전일 오후 마감 수치로, 연준의 금리 결정 자체는 반영했지만 이후 뉴욕 증시 반등이나 유가·금리 되돌림은 아직 담지 못했다. 이 흐름이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뒤늦게 확인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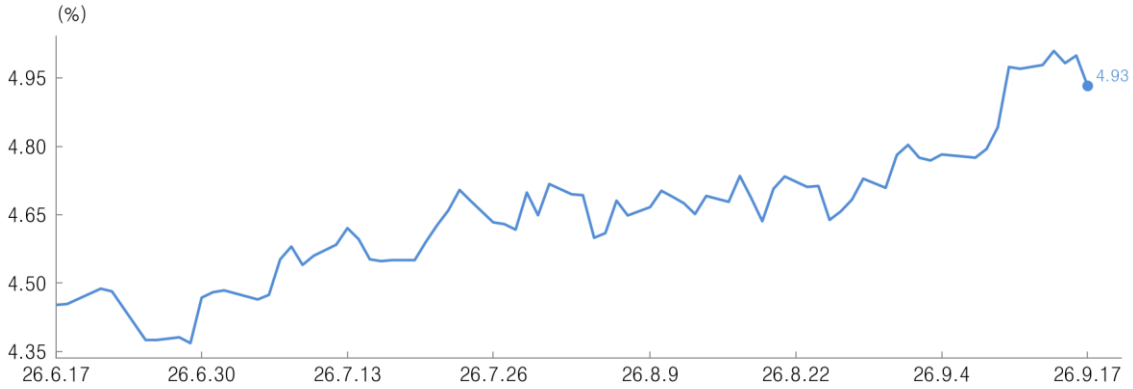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37.76	+1.14%	9/17 종가
	나스닥	26,418.29	+1.69%	9/17 종가
	STOXX 600	642.61	+0.86%	9/17 종가
	닛케이 225	64,136.03	+0.33%	9/17 종가
	CSI 300	4,460.16	-0.45%	9/17 종가
	KOSPI	6,715.41	-0.04%	9/17 종가
	항셍	24,604.29	-0.44%	9/17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100.22	-0.12%	9/17 종가
	달러/엔	155.94	-0.01%	9/18 종가
	유로/달러	1.15	+0.01%	9/18 종가
	달러/원	1,380.10	+0.20%	9/17 종가
	달러/위안	6.71	+0.02%	9/17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939%	-8.1bp	9/17 종가
	미국 2 년	4.670%	-6.6bp	9/17 종가
	일본 10 년	3.003%	+0.8bp	9/17 종가
	독일 10 년	3.490%	-3.6bp	9/17 종가
	한국 10 년	4.512%	-4.1bp	9/17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0bp	-6.0bp	9/16 종가
원자재	WTI	101.91	-0.51%	9/17 종가
	금	4,341.01	+1.79%	9/17 종가
	구리	6.66	+2.34%	9/17 종가
변동성	VIX	15.45	-12.81%	9/17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4 건 HIGH	•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금리 동반 급등, 고인플레이션·저성장 동시 진행 우려 심화 └ 유로존 8 월 연간 물가 3.3%로 전월 2.9%에서 0.4%포인트 가속, 유럽중앙은행(ECB)의 향후 12 개월 1%포인트 금리 인상 기대 반영 └ 브렌트유 옵션시장, 12 월말 배럴당 $100 도달 베팅에 최대 규모 집중 └ 주가 최고치 근처 수준 유지, 경제성장도 견조(소비지출 주도), 다만 고유가·고금리 심화 시 기업 수익성 악화 위험 • EU 채권의 국제채권지수 편입으로 유로 국제화 추진 └ 현재 EU 발행 채권이 소버린(정부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제지수 편입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수요·유동성 부족이 유로의 글로벌 안전자산 역할을 제약 • UBS 회장, 신종자본증권(AT1)의 실질 자본 속성 강조로 금융 자본 건전성 재확인 └ 블랙록·핌코 등 주요 자산운용사도 AT1 채권의 적격성 지지
미국 뉴스 40 건 HIGH	• 연준 첫 기준금리 인상 결정 — 정책 사이클 공식 개시, 10 월 추가 인상 기대 └ 기준금리 3.75%-4.00% 인상(3 년여 만), 연준 정책위원회 만장일치 결정 └ Warsh 의장,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독립성 강조 └ 10 월 추가 인상 확률 약 50 대 50 으로 평가(11 월 중간선거 직전) • 글로벌 주가 급등 — S&P500 +1.13%, 나스닥 +1.62%, 유가 완화·수익률 조정이 주도 └ 기술주 주도로 광범위 상승, 다우 +0.71%, 유럽 STOXX 600 도 +0.9% └ 유가 1 주일 저점,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이익실현) • 30 년 모기지 금리 6.95% — 20 개월 만의 최고, 기준금리 인상 효과 본격화 └ 2025 년 1 월 이후 최고 수준, 전주 6.76% 대비 19bp 급등 └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가속, 주택 시장 냉각 신호 • 금값 +2.3%, $4,361/oz 로 반등 — 약달러·저수익률 배경 └ 6 주 만의 저점 $4,234.65 에서 반등, 유가는 1 주일 저점(중동 공급 리스크 분산) └ 다만 사우디-예멘 충돌 지속으로 유가 공급 우려 상존 • 달러 강세 후 소폭 조정 — 유로·엔화 반등, 중앙은행 인상 사이클 반영 └ 연준 금리 인상으로 7 주 최고치 도달 후 유가·수익률 하락에 소폭 조정, 유로 $1.14755 로 반등 └ 엔화 상승, 일본은행(BOJ) 인상 기대 반영 • 노동시장 양호·주택 부문 약화 신호 동시다발 └ 신규실업수당청구 196k 로 예상(208k) 하회, 전주 206k 대비 개선 └ 8 월 주택 착공 127.5 만호(예상 130.9 만호), 건축 허가 139.4 만호(예상 141.0 만호) 모두 부진 └ 모기지 금리 급등이 주택 시장 냉각 신호 • 주요 중앙은행 정책 방향 이분화 — 영란은행(BOE) 동결·향후 인상, 일본은행(BOJ) 인상 임박 └ 영란은행(BOE) 기준금리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권역	요약
	└ 일본은행(BOJ)은 인상 결정 임박(시장 전망)
유럽 뉴스 31 건 HIGH	•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길트 매입 중단으로 채권 강세 └ 기준금리 3.75% 유지(위원 6 대 3 투표, 3 명은 4% 인상 지지), 6 개월 길트 매입 중단 및 초장기 길트 매입 완전 중지 └ 내년 초 인플레이션 4% 초과 가능, 베일리 총재는 중동 분쟁 장기화 시 추가 긴축 필요 경고 └ 길트 30 년물 4 개월 만에 최고 일일 상승률 기록, FTSE 100 1.2% 상승 마감, JP 모건은 내년 2 월 인상 전망 제시(기존 2027 년 인하 예상에서 변경) • 프랑스 2027 년 540 억 유로 긴축, 세금 인상 없이 재정 규율 회복 └ 적극적인 감축이 없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6.5%까지 확대될 가능성 경고, 2027 년 목표는 GDP 대비 5% 수준으로 설정 └ 2026 년 진행 중인 긴축 조치로 적자를 5.5% 이하로 유지 예상, 르코르누 총리는 세금 인상 회피 의지 표현 └ 유류 가격 인상에 따른 시위 등 정치적 압력 속에서 예산 협상 진행 중 • 스웨덴 총선 중좌파 연합 승리, 크리스터손 총리 사퇴로 정부 교체 전망 └ 중좌파 정당 연합이 176 석으로 크리스터손 총리의 우파 보수 블록(173 석)을 제쳤음 └ 사회민주당 당수 언더손 차기 총리로 거론, 스웨덴 최초 여성 총리 재임 가능 •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에 33 억 유로 추가 지원(미사일·드론 구매) └ 폰더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후 공표 • 이탈리아 국방부, 홍해 후티 위협 대응 해군 파병 준비 └ 바브엘만데브 해협 및 홍해 상황 악화로 후티 반군의 해상 위협 증가, 이란 연계 활동 확대 └ 이탈리아 상선의 안전한 통행 보장 필요, 해상 지연이 경제 및 소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 UBS, 스위스 신규 은행 규제가 과도할 경우 본사 이전 재검토 경고 └ UBS 회장 켈러, 새 규제가 국제 경쟁력을 해치면 스위스에서의 미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현
중국 뉴스 3 건 HIGH	• 중국, 사우디의 호소 받아들여 이란에 후티 억제 요청 └ 어제 저녁 중국이 비공개 채널로 이란에 후티 억제 지원 요청(이란 소식통 3 인 확인) └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의 홍해 해역 위협 급증 이후 중국에 먼저 도움 호소 └ 홍해 분쟁 확대로 중국의 주요 에너지 수송로 위협 심화, 이란의 대응은 현재 미정 • BYD 등 중국 자동차업체들, EU 현지 조달 규정 앞두고 유럽 공장 인수 경쟁 └ 예상되는 EU 현지 부품·생산 의무화 규정에 대비해 기존 자동차 조립공장 인수를 중심으로 추진, 신규 건설보다 생산 개시까지 소요시간 단축 └ BYD 는 스페인·프랑스 공장 인수 중심으로 추진, 이탈리아는 차선책으로 검토 └ 중국 완성차업체들, 유럽 내 향후 4 곳 공장 설립 목표
인도 뉴스 3 건 HIGH	•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100% 관세안, 인도-미국 무역협상 지장 우려 └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자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계획에 인도가 양자 관계·에너지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반발, 다양한 공급처 활용 기조 유지 의사 표명

권역	요약
	└ 인도 정유사들의 9 월·10 월 공급 계획에 러시아산 원유 포함, 에너지 공급 다각화의 실질적 필요성 반영 └ 시장 분석가들은 신규 관세가 진행 중인 인도-미국 무역협상의 진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RBI, 9 년 만에 유동성 흡수용 채권 판매 재개 — 통화정책 전달력 강화 신호** └ RBI 의 9 년 만의 유동성 흡수용 채권 경매 재개에서 강한 수요 기록, 추가 판매 확대 전망 └ 배경은 과다한 은행 유동성으로 인한 통화정책 전달력 약화(금리 인상 효과 지연) 극복, RBI 의 금리 인상 효과 강화 의도 • **루피, RBI 개입·지수 리밸런싱으로 95.93 달러 보합 — 금리인상 영향 상쇄** └ 루피 어제 95.93 달러 보합 마감(전일 95.9550), 역내 통화 중 유일하게 강세, 장중 96 달러선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RBI 개입과 글로벌 지수 리밸런싱 자금 유입으로 회복 └ 미국 금리인상 결정에도 루피의 상대적 안정성 유지, 자본유입·정책 개입의 이중 효과
남미 기타 뉴스 5 건 HIGH	• **아르헨티나 2 분기 GDP 2.0%, 시장 예상(1.6%) 상회** └ 어업(+45%), 광산(+16%), 농업(+7%)이 성장 견인 └ 실업률 7.9%로 3 분기 연속 상승(전분기 7.8%, 전년 7.6% 대비)
EM 기타 뉴스 26 건 HIGH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기준금리 16%로 인상, 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 └ 0.5%포인트 인상(이전 15.5%), 연속 인상은 드물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의 심각성 반영 └ 8 월 인플레이션 전년비 8.1%로 가속, 러시아의 산업·인프라 공격으로 중기 물가 위험 확대 └ 중앙은행 2026 년 GDP 성장률 전망을 1.1~1.2%로 하향할 가능성 제시 •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 3 곳 펌프스테이션 공격, 에너지 인프라 취약성 노출** •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집중 공격·나토 국경 인접 공격 강화, 제재 확대 경고** └ 러시아 야로슬라블 정유소 무인기 공격으로 원유 정제 운영 중단(지역 당국 65 대 무인기 격추 보도·화재 진화 중)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서부 대규모 공격으로 폴란드 접경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폴란드 전투기 출격·제슈프·루블린 공항 임시 운영 중단 └ 크렘린, 미국의 추가 제재 하원 통과에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난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 • **러시아-중국 유엔 이란 제재 독립 모니터링 종료, 사우디 후티 공격으로 첫 사망자 발생** └ 러시아·중국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란 제재 독립 모니터링 위임 종료(7 월 핵합의 재제재 이후 처음) └ 사우디 타이프 지역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무인기 격추 중 예멘계 거주자 사망, 사우디 여성·파키스탄계 거주자 부상(이번 달 누적 사상자 발생) └ 이란 핵합의 실효성 약화로 중동 지정학 리스크 상승, 사우디-후티 갈등 심화 • **체코·태국 중앙은행 금리 기조 분화, 신흥국 재정 규칙 재조정 움직임** └ 체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3.75% 유지하되 11 월 인상 검토 신호(근원 인플레이션·임금·대출·재정이 물가 위험 요인으로 지적) └ 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1.0%(세계 최저 수준) 유지로 경기 부양 기조 지속, 2026 년 성장률 3% 상회·2027 년 1.8% 전망 유지 └ 러시아 푸틴, 2027 년 예산 적자 GDP 2% 목표 발표(배럴당 $50 유가 보수적 가정), 2026 년

권역	요약
	경제성장률 최대 1% • **터키 주식 유동성 우려 진정, 우간다 통화 약세·말라위 물가 20% 고착, 파나마 운하 통행료 급등** └ 터키 주식, 수요일 5% 이상 급락 후 규제당국 유동성 진정 신호로 반등(신규 펀드 규정 관련 유동성 우려) └ 우간다 실링, 이란 정세 불안정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로 약세(상업은행 호가 3,925/3,935, 지난주 3,860/3,870 대비) └ 말라위 8 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0.0%, 상승세 지속
대만 뉴스 1 건	• **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 2% 동결 가운데 향후 긴축 신호** └ 기준금리 2% 유지, 시장 기대치와 일치 └ 2026 년 GDP 성장률 전망 11.48%로 상향 조정, 향후 긴축 전환 신호 └ 배경은 반도체 중심 산업의 견조한 성장, 물가 압력은 완만한 수준
브라질 뉴스 7 건	• **라틴아메리카 주식·통화 상승, 달러 약세·위험자산 선호 심화** └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 0.2% 상승, 달러 약세로 지역 통화도 동반 상승 └ 미국 국채 수익률 약화와 달러 약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기조 지속 └ 브라질 10 월 선거를 앞둔 정치 리스크가 시장의 주요 초점 •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5 분기 연속 0.25%p 인하** • **룰라 정부, 10 월 선거 앞두고 기본복지 15% 인상·가계부채 경감 신규안** └ 브라질 가계의 부채 이자 부담이 과거 최고 수준인 가운데 가처분소득 확대 목표 └ 복지혜택 인상과 소비자 부채 경감 이니셔티브로 선거 국면에서 실물경제 기저 강화 추진 • **브라질 정부, 온라인 카지노 금지 행정명령 추진(스포츠베팅 제외)** └ 정부는 작년 베팅 관련 세수 100 억 레알을 거둬들였음에도 규제 강화로 선회 └ 게임업계는 1,200 억 레알 규모의 보상 책임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 중 • **아르헨티나 2 분기 GDP 2% 성장, 시장 예상 상회**
프론티어 뉴스 3 건	• **루마니아 대통령, 국회 다수 없이 무레산 의원 총리 지명 — 신용등급 강등 위협** └ 니쿠솔 단 중도성향 대통령의 세 번째 총리 후보 지명(이전 2 건 무산) └ 무레산(44 세) 자유당 유럽의회 의원, 10 일 내 내각 구성 후 국회 신임투표 추진 예정 └ 루마니아 정치 위기 장기화로 투자등급 강등 압력 지속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